



충남대한민국의 중심

내민 작은 손  
마주하는 밝은 미소  
함께하는 즐거움

손길 나눔

아름다운 봉사활동이 묻어나는 행복한 소식지 **2007**

겨울호 | 통권33호

Youth  
voluntary  
service  
guide



충남남도 Youth Service Center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914년 12월, 그의 실험실은 화재로 전소되었다. 손해액은 200만 달러가 넘었지만, 보상금은 230만 8000달러였다. 피경성의 노력이 하루밤의 화염속에 타들어간 것이다.



모든 낙담하여 아무런 일도  
못하고 있을때, 불탄 실험실의  
주인이 말했다. "재난도 가치가  
있지. 내 모든 설비가 타버렸으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재가 나고 3주후, 그는  
최초의 녹음기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의 이름은 '에디슨'이다.



고난을 이겨낼수 있는 의지가 없다면, 성공은 결코 이룰수 없다. 과학생각.탄10.

# 손길나눔

winter 2007

아름다운 봉사활동이 묻어나는 행복한 소식지

겨울호 || 통권 33호

## Youth voluntary service guide

contents

- 02 여는 그림
- 03 차례
- 04 센터로 가자
- 06 박람회 수상작 (개인 봉사활동\_대상)
- 11 박람회 수상작 (동아리 봉사활동\_대상)
- 18 청소년자원봉사 인터넷으로 신청하자
- 19 청소년행정서비스헌장



손길나눔은 충청남도의 도움으로 기간 발행됩니다.  
센터 홈페이지(<http://www.bongsaior.kr>)에서 「손길나눔」을 만나보세요.  
최근호는 물론 과월호까지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처 ||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발행일 || 2007.12 비매품  
편집 · 디자인 || 신세계 커뮤니케이션즈 Tel. (042) 636-8955

센터로 가자!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새로운 명칭

### 설치근거

- + 1996. 문화체육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지원 계획통보』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 + 2006. 07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명칭변경 및 기능개편

### 설립목적

- + 지역사회 청소년 육성 운동 전개
- + 청소년 자아실현과 공동체 사회 발전에 기여
-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체계적 정보제공
- + 청소년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교육 실시
- + 청소년활동안내의 심화된 서비스로 청소년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

### 주요기능

- + 청소년활동요구에 관한조사/연구활동
- + 청소년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지역사회발전 운동전개
- + 청소년봉사활동 수급을 위한 정보제공 및 지원
- + 청소년육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 + 청소년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체계적 관리

### 일반현황

- + 명 칭 :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19-1, 논산공설운동장내
- + 설치자 : 충청남도지사
- + 운영단체 : (사)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논산지회
- + 전 화 : ☎041)736-9003,4
- + 팩 스 : ☎041)733-1984
- + 홈페이지 : www.bongsai.or.kr

### 함께하는 선생님~

- + 언제나 인자하신! 이성구 소장님
- + '칼있으나 오~!' 오제상 운영부장님
- + 센터 최고의 쌍얼 얼짱! 이선열 운영요원
- + 센터 최고의 동안! 김영이 운영요원
- + 센터 유일의 20대! 이영미 운영요원
- + 목소리가 아름다운 미시죽! 정희진 행정요원



#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계획

구분	사업영역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청소년활동지원영역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수립 추진	C/S, 홈페이지, 활동터전인증제, 마일리지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전문인력 Pool제 운영	실무자 직무연수, 네트워크, 프로그램개발
		리더십봉사단 개발 운영 (봉사캠프)	동아리지원, 해외봉사단, 사회유휴인력구성 및 지원
		학교와 센터간의 연계 협력	시범학교 운영, 협력학교보험 및 지원
	청소년활동 활성화	청소년 문화존 모니터링	모니토ory원모집 및 교육, 모니터링
		청소년활동 한마당	자원봉사박람회(대회)
	청소년활동 교육·홍보	유관기관 연계 및 교육	유관기관 워크숍, 우수프로그램 지원, 공동사업
		청소년활동홍보	홍보물 제작
청소년활동지원	청소년활동 욕구조사	지역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요구조사
		지역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정보안내	프로그램 정보 제공
	청소년수련 활동인증제	인증제 교육 및 설명회 운영	컨설팅, 교육 및 설명회
		인증제 홍보 및 심사지원	자료제작 및 간담회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활동정보통신원관리운영	통신원모집, 교육, 발대식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지원	설명회, 유관기관 정보담당자 위촉, 간담회
기타사업	센터 자체사업	센터 서포터즈 구성 및 지원	모집 및 연수
		청소년자원봉사 박람회	시상 및 전시 홍보
		센터 연수 및 홍보 발간	연수, 운영위원회, 활동교실 사업보고서, 청소년봉사 활동 소양교육

# 박람회수상작 + 개인 봉사활동

대상(충청남도지사)



광풍중학교 2학년 **현순영**

## 가. 동기

중학교 첫 입학을 하면서 담임선생님에 의해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언니나 오빠가 없어서 봉사활동이 어디에서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겠다는 결심으로 첫 봉사를 시작했다.



머니 한분이 계시다. 죽이나 스프 그리고 부드러운 간식거리들을 가정봉사 때는 항상 만들어서 온다. 치아가 없으셔서 씹지를 못하시다 보니 진지도 잘 드시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죽과 스프이다. 그렇다 보니 할머니는 나에게 손을 뻗어 내손을 마주잡고 늘 같은 말을 해주신다. “외워서 고마워,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내 첫 봉사는 동네의 독거노인 분의 집을 방문하여서 청소하고, 안마를 해드렸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 이보다 더 어렵게 생활하시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실까? 하는 생각과 함께 어머니께 여쭙어 주공 7단지에 있는 복지관에 가보기로 했다. 그 뒤에는 아파트 들이 있는데 그 곳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도시락 배달과 가정봉사를 했고 가슴속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최선을 다하자 라는 다짐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데” 그러실 때마다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그뿐만 아니라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오른쪽 팔, 다리가 불편하신 할머니께서는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다. 매일매일 일기를 쓰시는데 좋은 글귀들이 많이 있다. 그중 하나는 ‘오늘도 나는 뜨거운 물을 식혀서 페트병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놓는다. 오늘도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시원한 물 한잔을 준다면 그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고 말한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행복함을 얻는다. 그 행복한 생각에 저절로 미소를 짓고 오늘도 즐겁게 하루를 시작한다.’ 그 일기 속에도 나에게 편지를 쓴 것이 있었다. 그 내용은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되거라 하는 감사한 글귀가 있었다. 어느 날 내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일기에 나에게 대한 이야기를 써 놓으셨다. 할머니는 항상 사람은 짜증을 내기 보다는 웃으면서 밝고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다. 나는 항상 이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 한 구석에 새겨둔다. 몸이 건강하신 분들도 정직하고 밝은 사람만은 아니다. 우리와는 신체적으로 다르다고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지만. 언어는 곧 그 사람의 마음이다.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실을 나만 알고 있기에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다. 이처럼 내가 봉사활동을 거의 2년 동안 하면서 점차 많은 것을 깨닫고 혼란스러운 청소년기이지만 좋은 말을 항상 들으면서 나는 조금씩 성장하는 봉사의 의미를 배워갈 것이다.

## 나. 활동내역 및 실적

2주째 토요일에는 항상 도시락 배달을 하였다. 한집 한집 도시락을 전해드릴 때 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아이고, 오늘은 학생이 도시락을 나눠주네, 고마워 학생” 이라는 듣기만 해도 행복한 말씀들을 해주셨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에게 응원의 말을 해주다면 그 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처음해보는 도시락 배달이었지만 고맙다는 한마디에 나 스스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얼굴에 미소가 폈다. 도시락을 나누어드리고 다 드신 도시락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좋은 말씀들을 받아오는 것 같아서 늘 웃는 얼굴로 배달을 했다. 도시락을 항상 집안 까지 가져다 드렸고, 건강상태도 늘 살폈다. 도시락 배달을 하다보면 힘들었던 일상생활들을 잊어버리고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자유로워지고 행복하다. 아마 그 행복했던 마음이 무거웠던 도시락바구니를 아무렇지 않게 들 수 있게 해준 내 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봉사도 한다. 가정봉사는 4주째 토요일에 하고, 가정봉사를 다닐 때면 항상 나를 복도에서부터 반겨주시는 할

## 다.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도시락이 일요일 날



에 오지 않아서, 더군다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도시락을 아껴두었다가 드신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일요일에 봉사를 할 계획이며 점차 시작하고 있다. 봉사시간에 관계없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을 위하여 하는 일이고 더군다나 일요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이다. 그리고 요새는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있으며 상처를 받은 어린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 주고 싶다. 앞으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의 폭을 넓혀갈 것이다.

## 대상(충청남도지사)



## 공주여자고등학교 3학년 손유진

### 1. 봉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입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귀뚜라미가 울고, 풀 속에서 이름 모를 벌레가 이슬로 목을 적시며 하루의 시작을 노래합니다. 어느새 해바라기는 울타리 너머를 기웃거리고 몽게구름은 계절의 운치를 더해줍니다.

저의 봉사활동은 부모님께서 함께 가기를 권하셔서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일이나까 벌써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번 두 번 가다보니 언제부터인가 스스로도 혼자 갈 수 있을 정도로 마음도 열렸습니다. 또 그 곳에 계신 분들이 궁금해지고 그 중에는 그리워지는 분이 있기도 해서 자연스레 찾는 횟수도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과의사이신데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신 분이어서 그런지 형편이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상시에도 저희들에게 사랑과 봉사 그리고 나눔의 마음을 가지라고 행동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강조하시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우리가족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왔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을 지속적으로 아버지의 일에 동참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따라다녔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안에서 느끼는 감동과 보람 그리고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뜨거움과 기쁨 그리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2. 이런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에 나간 곳은 집과 가까운 곳이어서 부모님과 함께 가족단위로 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혼자서도 다녔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사랑의 호스피스와 기독교 종합 사회복지관이 우리가 주

로 다녔던 곳입니다. 집에서 먼 오지에 의료봉사를 나가기도 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주로 "왕촌 아버지 집"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마음과 뜻을 함께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고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는 곳도 선택되었습니다. 주로 아버지는 건강 상담과 치료를, 어머니와 저는 주방일과 세탁물정리, 청소 때로는 목욕봉사 등을 하였습니다. 방문하다 보면 분명히 그때마다 필요한 일들이 있었기에 꼭 해야 할 일을 계획해서 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찾아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부담을 가지면 자칫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위험이 있으니 자연스럽게도 친밀한 일에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인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자세가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된 힘의 원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 중의 하나였던 호스피스 활동을 통하여 느낀 점은 누구나 건강을 유지한 채 오래도록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병마로 고통 받고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치될 약과 치료법도 없는 상태에서 환자는 두려움과 절망,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 얼마 남지 않은 삶에 대한 아쉬움으로 때로는 절망에 빠

지거나 회생의 기적을 믿는 마음으로 혼란과 외로움에 휩싸여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거동도 못하시며 병원에 가실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리를 보전하고 누워계신 분들은 하루가 다르게 아위어 가고 계셨는데 곁에서 함께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로 받고 굳이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그 눈 속에서 혹은 잡은 손과 손을 통하여서도 많은 것을 교감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몇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할머니 한분은 가서 뵈 때마다 눈자위가 항상 젖어 있어서 측은하고 마음이 더 가는 분이었습니다. 손을 잡아드리면 잡은 손을 놓지 않으셔서 집안 정리도 하여 드리고 청소도 도와 드리려던 처음의 계획은 해보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손만 잡아드리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곁에서 보시던 우리 아버지께서 농담으로 “할머니, 우리 딸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오라고 할까요?” 하시자 고개를 끄덕끄덕하셔서 우리 모두 크게 웃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상시의 조용하시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신 채 돌아가셨는데 다른 봉사자 어른을 통하여 할머니께서 나에게 꼭 전해주라고 부탁하셨다는 봉투 하나를 전달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곳에는 학비에 보태 쓰라는 글과 돈 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릎팍과 감동이랄까 애잔함이랄까, 무언가 눈앞이 뿌연게 되면서 할머니의 젖어있던 눈망울과 아위고 하얀 손가락이 함께 교차되면서 그냥 멍하게 한참동안 서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30대 후반의 아주머니 한분이 계셨는데 자궁암 말기라 하였습니다. 온몸이 붓고 특히 복수가 차서 배가 심하게 부어오르는 분이셨습니다. 갈 때 마다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시면서 고통을 의연하게 참는 정말로 의지가 대단한 분이신데 그 분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5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심하게 아픈 와중에도 몸의 청결과 몸가짐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혹시라도 몸에서 냄새가 나거나 옷이 누추해지면 옆에서 지켜 볼 날이 얼마 안남은 사랑받는 아들이 엄마를 멀리할까봐 걱정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수차례 방문 후에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에게 처연한 표정으로 배가 너무 부르고 부종이 심하여 외모가 변하니 사랑하는 아들을 안아 주려고 해도 자꾸 무서워하고 피해서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보다 슬프다고 눈가를 적시며 힘이 이 말씀 하셔서 우리 모두를 눈물짓게 하셨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은 유달리 물건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신데 우리가 방이라도 청소해 드리려하면 갑자기 온몸이 경직되시면서 청소하는 내내 눈을 떼지 못하고 불안한 듯 감시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위치가 조금이라도 바뀔세라 당신 스스로 확인하시고 정리한 것을 또 확인하셔야 되는, 조금은 신경이 쓰이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솔직한 마음인데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우리는 저 할머니의 그동안 살아오신 과정을 모르잖니? 아마 그런 성품이 되기까지는 어떤 경험의 상처랄까 원인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구나, 그러니까 더 불쌍하잖니? 그냥 할머니 마음상하지 않게 조심해가면서 천천히 다가가 보자”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항상 경계하시고 긴장하시지만 나는 웃으면서 인사하고 태연하게 지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조금은 웃어주실 날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초연히 대하였더니 점차 경계의 눈빛이 사라졌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를 가진 초등학교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장애아동 학습프로그램보조를 하였습니다. 색종이 접기와 볼 풍질에서의 놀이, 율동치료와 간식 먹기 등의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아이들의 특성상 산만하고 자칫 위험한 상황들도 있었으나 무사히 넘어 갔습니다. 몇 분 되지 않는 선생님들만으로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보였습니다. 물을 얻지거나 음식물을 흘리고 끊임없이 옆의 학생과 다투고 전혀 주위를 염두에 두지 않는 산만함으로 계속 어지럽히기만 하였습니다.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은 막막하였습니다. 선생님, 복지관 직원, 봉사자 모두 합해도 너무 손길이 부족하여 장애아를 돌보는 국가와 사회의 제도가 보다 확충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절실 했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공주시 상왕동에 위치한 “왕촌 아버지 집”을 다녔습니다. 몇몇 기관에 봉사를 다녀 보았는데 상대적으로 형편이 덜 어려운 기관도 있었고,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었기에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단체나 봉사자들이 많았던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왕촌 아버지 집”은 다른 곳과 비교하여 볼 때 봉사자의 수도 적고 형편이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족은





그 곳을 집중적으로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금이나마 힘을 덜어드리고 싶었기에 뜻을 같이 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주로 60세에서 90세의 남녀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으로 50여분이 기거하고 계신데 주로 할머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은 자급자족의 형태로 주로 총당하시며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접 일하며 소도 키우시고 밭에는 고추며 양파, 마늘 등 농사를 직접 지어 함께 드시고 남은 농작물은 판매하여 운영비에 총당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거동이 자유로운 분들은 자기보다 부자유한 분들을 돕기도 하는 어쩌면 공동체 같은 생활을 영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는 오랫동안 혼자 사시게 된 어렵고 힘든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이 가고, 궁금해지는 할머니 한 분을 뵈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집을 나와 길에서 방황하시는 것을 누군가가 이 곳에 모셔오게 된 분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사시는 지, 누구랑 살았는지 왜 길에서 헤매고 다녔는지 잘 모르다며 말씀을 아끼는 할머니였습니다. 어깨를 주물러 드리거나 손을 잡고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산책도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려도 별로 반응이 없고, 못 들으신 척 행동을 하셨는데 몇 번 방문을 한 후에 그 것이 할머니의 진심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로 외롭고 힘이 드셨던 분으로 자녀들과 손자들은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며 눈시울이 젖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차차 쇠약해지고, 병원도 자주 가고……. 그러다보니 자녀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집을 나오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녀들이 그리 따뜻하게 모시지도 못한 것 같아, 남인 저도 속이 상했지만 할머니는 원망의 말씀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며,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고 그런 어른들을 계속 찾아뵈고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촌 어버이 집”에는 치아가 앞니 두 개만 남고 다 빠져서 외모가 조금은 우스꽝스럽지만 언제나 밝으신 모습이 보기 좋은 유난히 웃음이 많으신 할아버지 한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함께 기숙하는 식구들에게도, 찾아온 봉사자들에게도 항상 싱글벙글 웃음으로 대하여 주는 어버이집의 스마일 할아버지로 알려진 분입니다. 특별히 다른 분

들보다 더 잘해드리

는 것도 없는데 언젠가 일

끝내고 집으로 가려는 나를 급히 쫓아오셨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러다가 넘어지길라도 하시면 어쩌나 싶어 내가 할아버지 쪽으로 가려니까 투박한 손을 절레절레 흔드 시면서 나를 향해 오시더니 주머니 속에 무엇인가를 급히 넘겨주셨습니다. 궁금해서 손을 주머니 속에 넣어 꺼내려고 하니까 어깨를 밀면서 빨리 가라고 하시는 바람에 그냥 인사만 드리고 언덕을 내려오면서 모퉁이를 돌아서 주머니 속에 든 물건을 꺼내보니 그것은 포장지가 헤어진 커피검 한통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평소 검을 씹거나 사본 적이 거의 없고 예쁜 통속의 검만 접해 보아서 낯설기만 하였지만 너무도 소중한 의미의 검 한통이란 생각과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커피검보다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언제나 지금까지 밝게 웃으시고 모두에게 사랑을 주시는 스마일 할아버지로 건강하게 사세요.” 라고 외쳐 보았습니다.

또 재미있는 일은 간혹 어르



유를 주문하여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먹는 것을 잊기도 하고 먹기 싫은 날도 있어서 자연히 우유가 항상 밀리게 되는데 어느 날인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상당량의 우유가 밀린 채로 있었습니다. 유효날짜를 보니 여유가 별로 안남아 빨리 먹어야만 되겠기에 별 생각 없이 모아서 할머니들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날은 부모님 모두 약속이 있으셔서 혼자 가게 되었는데 가지고 간 우유를 할머니들에게 드렸더니 너무도 고마워하시면서 두 손으로 열린 받아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잡수셨고 어떤 분은 그 우유 하나가 무슨 값지고 맛있는 음식인양 이따가 출출 할 때에 잡수시겠다고 방으로 가지고 가시어 소중하게 보관하시는 것을 보고 순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젠고 냉장고를 열면 시원한 우유가 있었기에 아무 생각 없이 먹었고 심지어 남기고 버리기도 한 흔한 우유로 생각했는데 그 곳에 계신 분들은 그 우유까지도 소중한 음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속한 환경에 감사할 줄도 몰랐고 음식의 소중함도 몰랐으며 부모님께 감사함도 부족했구나하고 반성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순간순간 할머니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들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감사할 줄 아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에게서 돌려받는 값지고 소중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 면서 그 분들에게서 얻는 것이 더 많다." 라는 어느 봉사자의 깨달음을 저절로 공감하였습니다.

언젠가 일요일에 그 동안 봉사지는 고추와 양파를 수확하였습니다. 그날은 마침 어느 직장에서 한 팀을 이루어 자원봉사를 와서 모처럼 많은 봉사자들이 있어 생기 있는 하루였습니다. 땀병에 대비하여 썬 크림도 바르고 챙이 넓은 모자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쬐는 태양아래서 좁은 밭고랑을 다니며 비료 포대에 빨간 고추를 따서 담는 것은 힘들기만 하였습니다. 몇 개 따지 않았는데도 땀이 비 오듯 했습니다. 연신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열심히 고추를 수확한 후에는 다른 봉사자들이 캐낸 양파의 분리 작업을 하였습니다. 성한 것과 상처 난 것으로 먼저 분리하고 다시 크기별로 분리하여 망 속에 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썩은 양파에서는 어쩌나 냄새가 고약하던지 꼭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땀에 흠뻑 젖어 파김치가 되어서야 일이 모두 끝났고 직접 기른 고구마를 마

당에서 가마솥에 찌서 간식으로 내오셨는데 크기는 중구 난방이고 가마솥 바닥에 눌러 붙어 겉게 탄 것도 있었지만 배도 고프고 힘든 일을 한 뒤라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 3.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고3이다 보니 1,2학년 때와는 달리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독이나 된 듯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지 못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기에 부족한 시간도 쪼개가며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봉사를 하는 이 시간을 공부에 어찌 비할 수 있을까요. 공부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곳에서 봉사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개인이 운명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인력의 부족과 환경과 시설의 낙후로 인하여 마음은 있지만 어느 한계가 있기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낮은 상태였고 섬기고 보살펴 드려야 하는 손길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씩 방문하여 봉사하는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꾸준하게 봉사하는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신적, 심리적 지지와 사회의 관심, 유대관계의 형성이 더욱 그 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이나 혜택도 그 범위가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석구석 살펴보면 아직도 손길이 필요하고, 그 혜택을 다 못 받는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도우미로서, 우리나라 복지 현실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작으나마 제 힘을 보탬 수 있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시설의 현장에서 일하거나 국가 정책수립에 일조를 하거나 사회복지의 교육을 담당하여 나보다 후배들을 지도하는 것 등 어떠한 형태든지 신중하게 생각하여 실천한다면 이것이 나의 의무와 자긍심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주위의 친구들에게 적극 권장하여 함께 참여하도록 할 것이며, 대학에 진학하여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복지관련 일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2학기 수시에 '특별사회봉사경력 자전형'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제 꿈이 실현되기 위하여 지금보다 더 성실하게 열심히 봉사하는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 박람회수상작 + 동아리 봉사활동



대상(충청남도지사)

## 청양중학교 청양중 사랑나누미

지난 해 학기 초 청양 중학교에 입학하여 독거노인 봉사단이 처음 조직되면서 함께 시작한 활동이 벌써 2년이 가까워진다. 처음 시작한 봉사 활동의 불모지인 우리 학교도 이제는 전반적으로 봉사를 하는 분위기가 널리 확산되어 이젠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



을 드리니 기뻐하셨다. 이제는 우리의 활동이 제법 정착되어 팀원별로 어머님들과 봉사를 나가는 일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다. 그리고 추수철에 콩도 뽑아 드리고 밭도 정리해 드리며 일손 돕기도 열심히 했다. 지난 해 우리의 활동에 특히 보람이 되었던 일은 여러 곳에서 상을 받고 그 상금으

로 어르신들의 솜을 한 벌씩 사 드렸다. 올 겨울이 더욱 따뜻할 것이라며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며 우리의 몫으로 사용하기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나누어드려 더욱 뜻 깊은 일이었다. 그리고 지난해의 마지막 활동 중에서 떡국을 끓여드린 것이 기억에 남는다. 상금으로 받은 자금으로 떡과 쇠고기를 사서 떡국을 끓여드리니 설날을 앞두고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보는 우리도 또 다른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전년에 이어 우리 동아리는 "예절실천 봉사단" 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지만 금년에는 "청양 중 사랑 나누미"라는 이름으로 새로 단장하고 동아리의 규모를 더 확대하여 학생 43명(전년 30명), 학부모 16명(전년 10명)을 조직하였다. 학부모 봉사단과 함께 활동하므로 우리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많은 힘이 된다. 독거노인 분들에게 드릴 밑반찬을 만들어 주시며 산골짜기까지 차량을 운전해주는 등의 활동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앞장서주신다. 봉사하려는 독거노인도 작년에 이어 계속되고 있지만 자녀의 집으로 가신 분도 계시어 3가정을 다시 선정하였다. 청양 지역은 특별히 복지 시설이 없기 때문에 면사무소와 연락하여 봉사할 곳을 정하고 있다.

### 1. 전년의 활동을 돌아보면서...

지난 해 2학기 활동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알찬 보람과 열매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추석을 앞두고 어머님들이 만들어주신 송편을 독거노인 각 가정에 대접해 드리며 쓸쓸한 추석이 되지 않도록 해 드렸다. 송편과 함께 과일

을 드리니 기뻐하셨다. 이제는 우리의 활동이 제법 정착되어 팀원별로 어머님들과 봉사를 나가는 일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다. 그리고 추수철에 콩도 뽑아 드리고 밭도 정리해 드리며 일손 돕기도 열심히 했다. 지난 해 우리의 활동에 특히 보람이 되었던 일은 여러 곳에서 상을 받고 그 상금으

### 2. 금년의 첫 활동과 밑반찬 만들기

3월 셋째 주 토요일에 우리는 올 해의 첫 활동을 시작하였다. 우선 어머님들은 우리보다 이른 시간부터 독거노인에게 드릴 밑반찬을 준비하시며 학생들도 전 날 개발활동 시간이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반찬을 만들기도 한다. 장조림, 풋고추 멸치조림,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멸치 볶음, 고추장 볶음 등이 우리의 주요 메뉴이다. 봉사를 나가야 할 가정마다 형편이 다르므로 각 조별로 활동하는 내용이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 3. 시각 장애우 심병갑 할머니 댁

대치면 오룡리에 사시는 심병갑 할머니는 시각 장애이신 독거노인으로서 사시는 형편이 너무도 어렵다. 올 해 처음 정보를 듣게 되어 댁을 방문해 보았는데 집에 지하수도 나오지 않아 집 옆에 흐르는 계곡물을 이용해 생활하시며 겨우 내내 목욕을 하지 못하시며 집안 환경이 너무도 열악했다. 이제야 찾아가 뚝게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었다. 우리는 면사무소와 연락하여 목욕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렸으며 다 떨어지는 이부자리도 다시 마련해 드렸다. 언제나 혼자 외롭게 사시므로 우리는 방문 때마다 점심을 간단하게라도 준비하여 함께 해먹기로 하고 국수, 불고기 등을 준비하여 식사

를 나누니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맛있는 점심은 난 생 처음이라며 번번이 감격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나누며 안마해드리고, 풀도 뽑아드리니 할머니는 우리가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신답니다.

#### 4. 시각 장애우 김석환 할아버지와 거동을 못하시는 할머니 부부 가정

대치면 광곡리에 사시는 할아버지는 앞을 못 보시는 분이 며 거동을 못하시는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시는데 작년 부터 꾸준히 봉사 나가는 덕이다. 치아가 좋지 않으셔서 그 곳은 팔죽, 호박죽 등을 쑤어다 드리곤 한다. 또 물김치를 좋아하셔서 정성껏 담가 드리기도 한다. 걸모습은 무서워 보이시지만 자주 찾아보니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시간을 즐기며 기다리신답니다. 어느 날 우리가 활동하고자 하는 날 할머니께서 청양 의료원에 입원하셔서 데에 안 계시다고 직접 연락까지 해 주십니다. 이미 계획된 일하기에 우리는 병원으로 문병을 갔다. 내외분이 생각지 않은 우리의 방문에 깜짝 놀라시며 감격하셨습니다. 우리는 준비해간 과자를 함께 나누며 위로해 드리고 돌아오는데 기뻐하시는 내외분을 보니 많은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 더 많은 정을 나누어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이전 친할아버지처럼 느껴진다.

#### 5. 홀로 되신 이 병례 할머니 덕 (카네이션 만들기)

비봉면 장재리 이 병례 할머니 가정도 작년 부터 계속 활동해온 가정이다.

이곳은 작년에는 내외분이 계셨지만 지금은 할머니 혼자만 계신다. 봉사 다니던 중 지난 2월에 할아버지께서는 노환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소식을 몰라서 가보지는 못했으나 우리가 늘 돌아와 드리던 분이어서 안타까웠다. 장례식에 못 찾아 간 것이 죄송스럽다. 슬퍼하시는 할머니를 위로해 드렸고 앞으로 우리가 더욱 자주 찾아뵙고 쓸쓸하지 않게 해 드리겠다고 다짐했으며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금년에도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는 가사실에서 작년처럼 카네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을 찾아갔다. 우리가 어버이날 노래를 불러 드리자마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 아마 할아버님 생각 때문이신가 생각한다. 할머니께 더 잘해 드려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게 되었다. 2006년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님과는 친손자처럼 친해졌으며 우리를 많이 기다리신다. 자주 방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즐겁기만 하다. 무엇보다 어머님들께서 만들어 주시고 가끔 우리도 함께 만든 밑반찬은 어르신들의 식사에 많은 도움이 됐다. 우리가 봉사활동을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할머니의 적직함을

덜어 드렸다는 것에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 이전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 만들기가 우리 학교의 연중행사가 되었다.

#### 6.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염을순 할머니

정자리의 염을순 할머니는 작년 부터 활동한 가정이다. 지병인 관절염으로 휠체어를 많이 이용하신다. 자녀가 있지만 오지 않으며 병원의 치료도 이전 소용없다고 하신다. 갈 때마다 청소가 안 된 집안을 깔끔하게 치워드리고 빨래도 해드린 후 위로해 드리면 할머니가 살아오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울곤 하신다. 팀원들은 물질적인 봉사도 해 드리지만 마음의 위안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한다.

#### 7. 노인의 집에서 생활하시는 두 할아버지

금년 들어 새로이 봉사를 시작하기로 한 한돈희(남,70세), 박공순(남,65세) 할아버지는 자녀가 없이 두 분만 살아가시며 허리가 많이 불편하시다. 비교적 깨끗하지만 우리가 가는 날을 앞두고 할 일을 모아 두시므로 방, 유리창 청소 등을 해드린다.

특히 식사 준비가 어려우시다 하여 밑반찬을 다른 곳보다 더 많이 해 드리고 있다. 무뚝뚝하시지만 우리가 위로해 드리고 시간을 같이 하면 할아버지들의 얼굴에 미소가 활짝 피어나기도 한다.

#### 8. 새로 시작한 할머니 덕

봉사를 함께 하시던 어머님들이 외로워서 사람이 그리운 할머니를 새롭게 돕지 않을 수 없다 하여 2학기부터 봉사하게 된 윤곡면 신원리의 할머니 덕을 방문해보니 청각 장애이시며 정신 지체로 방금 드린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나가겠다는 말씀만으로도 좋아하십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는 학교 가사실에서 송편을 빚어 할머니 덕을 찾아 갔다. 쓸쓸하셨던 할머니는 우리를 보시고 몹시 반가와 하셨다. 미리 맛보시는 송편이라서 더욱 맛있다고 하셨다. 돌아오는 우리를 대문 밖까지 나오셔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배웅을 하시며 자주 오라고 하신다. 쓸쓸하신 할머니를 정성을 다하여 위로해 드리기로 했다.

#### 9. 송편 대접

우리는 추석을 맞이하면서 송편을 빚어 어른들에게 대접하기로 했다. 솔잎을 학교 주변 산에서 뽑고 쌀가루와 속에 넣는 고물은 어머님들이 준비해주시고 만드는 시간은 점심시간과 개발활동 그리고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만들었다. 송편을 찌서 먹어보니 솔 향이 솔솔 나는데 이렇게 맛있는 송편이 전에 없었던 것 같다. 어르신들께 대접



하여 기  
 뻘 하 실  
 것을 상  
 상 하 니  
 우리 는  
 어 려 운  
 줄도 모  
 르고 열  
 심히 만

님을 모시고 집  
 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준비를 마  
 치고 마사지를 해드리는데  
 이례가 처음 동작을 헛갈려서 다른 것  
 을 하여서 한바탕 웃었다.. 다시 mp4로 동영상을 보면서  
 할머니께 해드렸는데 참 좋아하셨다. 힘들긴 했지만 왠지  
 뿌듯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다. 그리고 할머니와 얘기도  
 하고 먹을 것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잠시 보내고  
 발마사지를 마치고 우리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다시 잡  
 초를 뽑았다. 그리고 우리는 정리를 하고 집으로 갔다. 집  
 에 가려는데 할머니께서 삶은 달걀 9개를 주시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먹으라고 하셨고 그때 할머니가 참 고맙기  
 도 했고 우리가 할머니 드실 것을 가져가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기는 했다. 집에 돌아갔더니 전신이 막 아팠  
 지만 마음만은 즐겁고 뿌듯했다.

들었다. 완성된 송편을 정성껏 그릇에 담아 각 가정으로  
 나갔다. 할머니, 할아버님들은 별미를 추석 전에 미리 맛  
 볼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시면서  
 기뻐하신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활동에 더욱  
 보람을 느낀다.

### 10.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1학기 평가회

2년 가까이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우리 “사랑 나누미” 동  
 아리는 구성원들의 관계가 형제처럼 친숙해졌으며 1학기  
 에 한 번씩 평가회 겸 단합모임을 통해서 팀 워이 더욱 새  
 롭게 맺어졌다. 팀별로 각각 다른 곳으로 활동을 나가므로  
 이런 때에 다른 팀을 활동 내용을 듣게 되어 새로운 정보  
 을 얻기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항상 학부모님들도  
 참석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힘을 주시며 격려해 주신다.

### 11. 발 마사지 교육

금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더욱 효과적이며 도움을 드  
 릴 봉사를 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충남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발 마사지를 배우는 과정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우리는 어머니들과 7월14일 병천 고  
 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발 마사지 교육을 받았다. 어머니와  
 학생이 한 조가 되어 여러 단계의 마사지 동작을 꼼꼼하  
 게 배웠으며 어머니와 학생이 한번씩 번갈아가면서 서로  
 에게 발마사지를 연습했고 앞으로 팀별로 우리가 배운 발  
 마사지를 할아버지, 할머니께 해드리기로 하였다. 2학기가  
 되어서 우리는 발 마사지를 팀별로 전달교육으로 모두  
 배워 열심히 해드렸다. 아작은 서투른 솜씨로 피로를 충  
 분히 풀어드리기에 부족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그 분들께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자신을 갖게 되었다. 그날은  
 무척이나 더웠는데 할머니께서 나와 계셨고 얘기를 들어  
 보니 오늘은 할머니의 가족들이 추석이 다가왔다고 할머  
 님 맥을 찾아오는 날이라 이렇게 마중을 나와 계신다고  
 하셨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일이 오는 날이었는데 할머  
 니께서 날짜를 혼동하셨던 것 같다. 그 맥에 봉사활동을  
 나간 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그 맥의 개가 아주  
 무섭다. 조그마한 개지만 들어가려고 하면 무섭게 짖어대  
 고 나갈 때 까지 짖어댄다. 그래도 우리는 어렵사리 할머

### 12.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학교에서 우리 동아리를 모  
 르는 학생은 거의 없게 되었고 또한 봉사대상 가정 주위  
 의 이웃 분들이 제보를 해주셔서 전년에 이어 금년에고  
 청양신문과 뉴스청양에 우리의 소식이 여러 차례 보도되  
 었고 2006년 11월 충남청소년활동 진흥 센터에서 주최  
 한 자원봉사 박람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해서 활동상황을  
 전시하게 되었고, 한국청소년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봉  
 사활동대회에서 동아리 대표 우수상을 수상, 2006년 10  
 월 충청남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나랑 나눔 봉사활동 공모  
 대회에서 교육감 표창을 수상했다.  
 이제 우리학교는 다양한 봉사활동 동아리가 있어서 전교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아리에 가입하여 많은 활동을 하는  
 학교분위기로 확산되었다. 청양지역에서는 청양 중 사랑  
 나누미와 청양 중 학부모 봉사단의 활동이 널리 알려져  
 봉사에 관심이 없던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자하는 의  
 욕을 심어주는데 많은 영향을 주

빨리 포기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처음 빈 분들께 이런 큰 가르침을 받아서 왠지 기분이 좋았고 나도 내 할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도와드릴 일은 많지 않지만 활동할 때마다 안마해드리고 학교 이야기와 우리가 겪었던 일을 알려 드리자 참 좋아하셨다. 내가 생각하기엔 별로 재미없는 얘기인데도 그분들은 너무나도 즐거워 하셨다. 잡초도 뽑고 그분들과 과자와 음료수도 나눠먹고 일도 도와드리다 보니 어느새 봉사시간이 끝나고 말았다. 얼마나 아쉽던지 모른다. 그리고 2주일이 흐르고 다시 봉사활동에 가게 되었다. 2번째라서 제법 능숙하게 풀을 뽑고 그분들 안마도 해드리고 말벗을 해드리다가 처음으로 마루와 방을 청소해 드렸다. 반찬을 드리면 너무 고마워하신다. 그분들이 빨리 병이 나오셨으면 하는 소망도 들었다. 하지만 2007년이 되어 한구수 할아버지께서 병을 이기지 못하시고 2월에 돌아가셨다. 나는 그 소식을 3월 중순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빨리 알았으면 장례식장에도 갔을 텐데 못가서 죄송스럽고 안타까웠다. 그래서 우리 팀에는 이병례 할머니만 남게 되었고 우리는 갈 때마다 할머니를 위로해 드린다. 우리는 항상 봉사활동을 갈 때 즐겁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만

해도 그 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1년 이상 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봉사활동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랑 나누미" 동아리는 전통이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보람이 있다. 첫째 처음에는 비록 작은 시작이었으나 이제는 청양지역에 널리 알려져 제보자에 의해 신문에 알려지기도 했고 학교나 지역에 봉사의 의지를 심어주는 작은 불꽃이 되었다. 둘째 6가정, 8분의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때마다 밀반찬 제공과 일손 돕기, 위로해드리기 등으로 지역의 외로운 독거노인들의 손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효와 예절실천의 본보기가 되었다. 셋째 학부모님과의 연합활동은 지역사회와 학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봉사활동으로서 좋은 사례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과함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다. 그리고 활성화된 이 활동을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하고 알찬 봉사활동 동아리로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봉사활동이 지역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 곳에 좋은 본보기가 되어 지역을 봉사활동으로 깨우는 동아리가 되도록 발전시킬 것을 다짐한다.

## 대상(충청남도지사)



## 안면고등학교 안면도지킴이

### 1. 이런 동기로 시작했습니다.

#### 1. <안면도지킴이>조직 동기

내가 다니는 안면고등학교는 충청남도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6번째로 큰 섬이었는데, 1972년 연육교가 개통되고 나서는 섬이 아닌 육지가 되었다. 학교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예전에 천수만 AB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전을 가는데 7시간이나 걸렸다고 한다. 그래서 그 시절 우리 고장은 충남에서 벽지 중의 벽지로 우리 고장에 부임받은 선생님들은 울면서 오셨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환경과 인심에 매료되어 떠나실 때는 또 한 번 울면서 가신다는 일화가 전해온다. 이처럼 우리 고장에는 꽃지해수욕장을 비롯하여 13개의 아름다운 해수욕장과 사계절 늘 푸르고 곧게 자란 안면송이 울창한 숲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서해



안고속도로의 개통 그리고 최근 웰빙 바람과 주5일제 실시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 고장을 찾아오면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들어선 펜션과 음식점들로 아름다운 환경이 훼손되어가고 있으며, 탐방객들이 버리고 간 많은 쓰레기와 속

박업소,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인해 아름다운 우리 고장의 환경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 고장의 환경은 우리가 지키자'라는 취지를 내걸고 작년 초 처음으로 <안면도지킴이> 환경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하였으며, 올해는 교육과정 개발활동 부서로 <안면도지킴이>를 조직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환경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정호 선생님을 지도교사로 모시고 연간활동계획을 세워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방과 후에는 우리 고장에 있는 13개 해수욕장 환경보전활동을 통하여 자연친화정신과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였고, 매월 넷째 주 토요일 개발활동



시간과 연계하여 사구, 갯벌, 숲에 대한 체험학습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과 시간에 배운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여름 방학 기간과 쉬는 토요일을 활용하여 우리 고장의 명소 탐방 및 계룡산 등반과 도예체험학습을 통해 애향심을 함양하고 호연지기와 극기심을 배양하였으며 자신의 특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은 물론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 2. 「안면도지킴이」 아이들

아름다운 자연과 쉽게 접하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라온 우리의 학생들은 순박한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우리 고장이 관광명소로 부각되면서 많은 탐방객들이 우리 고장을 찾아오고 있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수 많은 펜션과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폐수와 탐방객들이 버리고 간 많은 쓰레기들로 우리 고장은 몸살을 앓고 있다.

한편, 부모들의 자녀의 학업에 대한 열의가 적고 기초·기본 학력이 매우 떨어진 본교의 대부분 학생들은 토·일요일과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음식점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돈으로 사치와 탈선에 빠져 예전의 순수한 모습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서서히 병들어 자신감을 잃고 목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면도지킴이〉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되찾아 가고 있다.

### 하나 : 아름다운 내 고향 우리가 지킨다.

가. 학생들 스스로가 자연환경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고장의 명소인 꽃지해수욕장을 비롯한 13개 해수욕장 환경정화활동과 탐방객들에게 안내도우미 역할을 통하여 환경보전의식과 애향심을 고취하였고,  
나. 태안국립해안관리공단사무소,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지원센터, 안면읍, 충청남도안면도휴양림관리소와 연계하여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활동들을 학교 홈페이지 동아리방에 탑재하여 학생들의 자긍심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면화 시켰다.

### 둘 : 다양한 탐방활동을 통하여 환경의식 고취

가. 여름 방학과 쉬는 토요일을 활용

하여 우리 고장의 명소를 탐방하여 애향심과 자신의 진로 탐색에 대한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나. 도예체험활동을 통하여 조상들의 환경친화정신을 본받고, 자신의 특기를 개발할 수 있었으며,  
다. 사구, 갯벌, 해양동·식물에 대한 체험학습을 통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수업시간에 배운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 셋 : 건강한 육체와 바른 심성 함양

가. 계룡산 등반활동을 통하여 호연지기와 극기심을 배양하였고, 충청남도자연휴양림 탐방활동을 통하여 숲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나. 안내도우미활동과 캠페인활동을 통하여 세상은 혼자서 살 수 없으며,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II. 이런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있어요.

### 하나 : 아름다운 내 고향 우리가 지킨다.

#### 1. 안면도해수욕장 환경보전활동

##### 가. 목적

안면도에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13곳이 있다. 최근에는 웰빙바람과 주5일제 실시로 많은 탐방객들이 우리 고장을 찾아오고 있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로 펜션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고, 또한 그들이 버리고 간 생활 오폐수로 청정 안면도가 점점 오염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고장의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는 표어를 내걸고 〈안면도지킴이〉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하였으며, 올해는 개발활동 부서로 〈안면도지킴이〉를 조직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나. 활동 절차

사전 활동	활동의 실제	사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사장·삼봉·기지포·안면·갯개·두에기·방포·꽃지·갯벌·장삼포·장곡·운여·바람아래해수욕장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안내교육</li> <li>모듬편성 및 활동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소 선정</li> <li>- 준비물 안내</li> <li>- 주의사항확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원확인</li> <li>준비물 점검</li> <li>삼봉해수욕장으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듬별로 환경보전 활동을 한다.</li> <li>- 쓰레기수거 및 분리</li> <li>- 환경보전 실천 기록 표찰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 반성</li> <li>소감문 작성</li> <li>소감문 발표</li> <li>주변정리</li> </ul>

#### 다. 활동 내용

- 기간 : 2007. 4. ~ 2007. 8.
- 장소 : 안면도내 해수욕장 13곳, 안면도자연휴양림
- 대상 : 계발활동 <안면도지킴이> 부원 학생(30명)
- 시간 : 매월 홀수주 토요일(13:00~15:00)
- 내용 : 환경보전활동, 캠페인활동, 안내도우미활동



른 지역에 대해서는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많다. 한마디로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반면에 여름 피서철과 주말마다 찾아오는 도외지의 탐방객들을 보면서 도시의 화려하고 향락적인 문화를 동경하고 모방하고자 애쓰고 있다. 그러다보니 순박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는 점점 사라지고 난폭하고 거친 행동과 말투가 종종 나타나곤 한다. 이런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우리 고장의 대표적 명소 8곳을 탐방활동하였고, 진로, 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의 도움을 주고자 태안해양경찰서의 협조로 함상체험활동과 서해특성화연구센터를 견학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 라. 온라인상 카페 운영

- 목적 : 우리들의 활동 사진 및 소감문, 우리 고장 소개
- 주소 : <http://www.anmyeon.hs.kr> /안면고등학교 홈페이지 봉사활동란)

### 2. 안면도해수욕장 캠페인활동

우리 고장 안면도에는 아름다운 해수욕장과 안면송이 잘 가꾸어진 숲이 있는데 탐방객들의 물지각한 행동으로 점점 훼손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전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마음가짐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피서철에 안면도 내 10곳의 해수욕장에 환경보전현수막을 게시하고, 화장실마다 환경관련 명언 홍보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안면도지도와 환경관련 문구가 새겨진 손수건을 탐방객들에게 배부하여 환경보전캠페인을 전개하였다.

### 3. 안면도해수욕장 안내도우미활동

우리 고장 안면도에는 아름다운 해수욕장과 안면송이 잘 가꾸어진 숲 뿐만 아니라 풍부한 먹거리가 자랑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탐방객들은 철따라 나오는 해산물과 우리 고장의 명소를 잘 모르고 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들에게 우리 고장의 명소 소개와 먹거리를 소개하고자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 나. 활동 절차

사전 활동	활동의 실제	사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흥성·백화산·몽산포구·신두사구·만리포해수욕장·함상체험·서해특성화연구센터 등에 대한 안내교육</li> <li>• 모둠편성 및 활동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소 선정</li> <li>- 준비물안내</li> <li>- 주의사항확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확인</li> <li>• 준비물 점검</li> <li>• 탐방 활동 장소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둠별로 탐방활동 동행한다.</li> </ul> </li> <li>• 중요 사항 메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반성</li> <li>• 소감문 작성</li> <li>• 소감문 발표</li> <li>• 주변정리</li> </ul>

#### 다. 활동 내용

- 일시 : 2007. 6. 9(토)(08:00~17:00)
- 장소 : 태안 8경, 태안해양경찰서, 서해특성화연구센터
- 대상 : 계발활동 <안면도지킴이> 부원 학생(30명)
- 내용 : 탐방활동

### 2. 계룡산 도예촌 도예체험활동 및 숲체험활동

#### 가. 목적

충남 유일의 국립공원 계룡산을 산행함으로써 국립공원의 소중함과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었고, 인근 도예촌에서 도예체험을 함으로써 자신의 특기를 계발하고 조상의 슬기와 맛을 체득할 수 있었다. 또 충청남도산림박물관을 견학하여 숲의 중요성과 환경보전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었다.

#### 둘 : 다양한 탐방활동을 통하여 환경 의식 고취

#### 1. 태안 8경 문화 탐방

##### 가. 목적

우리 학생들은 안면도에서 태어나 자랐으면서도 자기 고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안면도를 벗어나 태안읍과 태안군의 다

#### 나. 활동 절차

사전 활동	활동의 실제	사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룡산·충남자연휴양림·도예·염색체험활동</li> <li>• 모둠편성 및 활동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소 선정</li> <li>- 준비물안내</li> <li>- 주의사항확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확인</li> <li>• 준비물 점검</li> <li>• 탐방활동장소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둠별로 탐방활동 동행한다.</li> </ul> </li> <li>• 중요 사항 메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반성</li> <li>• 소감문 작성</li> <li>• 소감문 발표</li> <li>• 주변정리</li> </ul>





**다. 활동 내용**

- 일시 : 2007. 8. 16(목) (0800~1800)
- 장소 : 계룡산 도예촌, 충남자연휴양림(공주)
- 대상 : 계발활동 <안면도지킴이> 부원 학생(30명)
- 내용 : 탐방활동계룡산 등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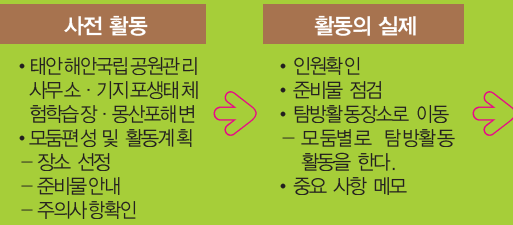
**셋 : 바다·숲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1.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연계한 프로그램활동**

**가. 목적**

우리 학생들은 천혜의 아름다운 고장 안면도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고장이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있는 것도 모르고 있으며, 나아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리 고장의 해양 동·식물과 갯벌, 사구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에게 국립공원의 설립 목적과 활동을 알게 하고 나아가 우리고장의 해양 식·동물과 갯벌, 사구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자 태안국립공원과 연계하여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나. 활동 절차**



**다. 활동 내용**

- 일시 : 2007. 5. ~ 2007. 9. 1
- 장소 : 본교, 기지포생태체험학습장 몽산포 해변
- 대상 : 계발활동 <안면도지킴이> 부원 학생(30명)
- 내용 : 생태체험활동, 갯벌체험활동

**III.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안면도지킴이」 활동이 끝나면 반드시 그 날의 활동에 대한 소감이나 느낌을 적도록 자료를 준비하며, 학생들 스스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토의하고 찾도록 하여 생명을 가꾸는 정서적인 아름다움과 친환경적인 의식을 내면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협동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이식의 소중함을 체감하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이 되었다.

**1. 안면도해수욕장 자연보전활동을 통하여**

가. 우리고장의 명소인 「백사장, 삼봉, 기지포, 안면, 빗개, 두에기, 방포, 꽃지, 셋별, 장삼포, 장곡, 운여, 바람아래

해수욕장 환경보전활동을 통하여, 애함심을 함양하였고,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점점 오염되어 가는 바다와 숲을 보면서 쓰레기를 무심코 버린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다.

나. 태안해안국립공원관리사무소, 안면읍,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환경보전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고, 그들이 주최하는 환경교실에 참여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삶을 배우고, 환경보전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계기와 학생들의 의식이 친환경적으로 내면화 되었다.

**2. 다양한 탐방활동을 통하여**

가.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재를 탐방하면서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하고 정서를 순화하였다.

나. 계룡산탐방활동을 통하여 호연지기와 극기심을 배양하였고, 도예체험활동을 통하여 조상들의 환경친화정신과 슬기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충청남도산림박물관 견학 활동을 통하여 숲의 중요성을 깨닫고 환경보전의식을 내면화 할 수 있었다.

**3. 바다·숲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연계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알게 되었고, 우리 고장의 해양 동·식물과 사구, 갯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으며,

나. 충청남도산림박물관 견학활동을 통하여 숲의 중요성과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였고,

다. 갯벌체험과 숲체험활동 후에 소감문 작성 및 발표를 통하여 환경보전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었다.

**4.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모한 2007환경보전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됨으로써 사기가 충전되었고,

나. 다양한 환경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견문을 넓히고 환경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활동이 신문에 실려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자, '난 안돼! 라는 부정적인 사고에서 '나도 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면서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 청소년을 21세기 주역으로 육성

## ||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참여 확대

- 청소년들의 정책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연 1회 이상 청소년과 도지사와의 만남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도 청소년자치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연 2회 이상 청소년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보살펴 나가겠습니다.
- 청소년의 독립된 인격체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박람회 1회, 문화정보지 발간 4회, 성년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 || 국제화·정보화 시대의 주도능력 배양

-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과 상호 문화교류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를 연 5회 이상 실시 하겠습니다.
- 청소년의 정보활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도 홈페이지에 사이버 백제역사 문화관, 예절마당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 학습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과 수련활동 지원

-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의 집 7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어울마당, 음악회, 동아리육성 등 3가지 이상의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 청소년 수련시설 13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속적인 수련활동 공간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모두가 참여하는 청소년 보호

- 청소년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영재육성장학제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청소년자원봉사센터 1개소 이상을 운영하고 15개 이상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봉사활동터전을 30곳 이상 확보하여 봉사활동을 돕겠습니다.
- 청소년의 진로, 이성, 성문제 등 고민을 풀어주기 위하여 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1개소를 운영하되, 상담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연 2회 이상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www.bongsai.or.kr



충청남도 Youth Service Center

청소년활동진흥센터

(320-802) 충남 논산시 취암동 19-1 공설운동장내  
전화 | 041·736·9003(4)  
팩스 | 041·733·1984

홈페이지 | [www.bongsai.or.kr](http://www.bongsai.or.kr)